

# 보 도 자 료



##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1998년 이래 매년, 총 10차에 걸쳐 동일한 가구, 가구원을 추적해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하여 학술대회 개최

- 노동부 후원, 한국노동연구원과 7개 학회 공동개최
- 총 12개 세션에서 32편의 학술논문 발표

□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2009년 2월 5일 목요일 9:30~18:3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2편의 학술논문 발표

- 비정규직, 혼인, 교육, 복지와 계층이동, 가구 내 의사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득 불평등, 가계자산, 임금, 은퇴를 주제로 관련 학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

□ 이하에서는 3편 논문의 내용을 소개

· 발제1: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능력의 시장 가치」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형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2: 「사회보장제도 및 은퇴결정이 은퇴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전승훈(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

· 발제3: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혹은 독신?」

우해봉(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더 높은 임금은 영어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 (김진영, 최형재)

- ☐ 영어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며 영어 능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대가로 이어지는지를 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봄
  - 영어 능력은 학력과 연령에 크게 의존하지만, 거주지와 가족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때 영어 능력을 갖춘 확률이 높음
    - 대도시 거주 여부가 영어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
      - 읍면지역의 영어 교육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 ☐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학력이나 연령을 통제하더라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영어 프리미엄은 2000년대 들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영어 점수(TOEIC)가 높은 사람의 임금이 높은 현상은 관측되지 않으며, 수능백분위 점수를 고려할 경우 영어 프리미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능점수가 낮으나 영어 능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수능점수가 높고 영어 능력이 낮은 사람의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며,
    - 영어 능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받는 높은 임금이 영어 능력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 ☐ 영어 능력이 개인의 자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도 발견

## 2. 조기은퇴자의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 (전승훈)

-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은퇴결정 및 은퇴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2007년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
  - 생애 조기노령연금 급여예상액이 많을수록 조기은퇴 확률이 높아지며, 생애 정

규노령연금 급여예상액이 많을수록 조기은퇴 확률이 낮아짐

- 정규은퇴자의 생애연금급여는 은퇴 후 노동공급을 감소시킴
-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2007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이 조기은퇴 확률 및 은퇴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생애 노령연금의 감소가 조기은퇴확률을 높이거나, 효과의 크기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조기은퇴자의 경우 정규은퇴자와는 달리 상당수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고령층의 고용 보호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기은퇴 확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 따르면 고용이 안정적일 경우 조기은퇴 확률이 낮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는 상당수 조기은퇴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

### 3. 남성고학력자는 결혼을 연기하나 여성 고학력자는 결혼 자체를 기피 (우해봉)

□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감소는 주요한 인구변동 이슈임

-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 연령의 상승에는 고등교육의 팽창이 그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단순히 결혼을 연기하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등교육의 획득이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을 증가시키는가를 분석함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19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그 이전 출생 코호트와는 달리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결혼을 연기할(marriage delayed) 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marriage forgone) 개연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같은 1970년대 이후 출생자라 할지라도 여성과 남성이 또 다른데, 교육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게 만들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는 교육이 결혼을 단순히 연기하는 효과를 가지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일과 가족의 영역에서 동시에 요구되는 역할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능력의 시장 가치

담 당 자	김진영, 최형재
소 속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화	02-450-3633
매 수	3 매

- 본고는 영어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며 영어 능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대가로 이어지는 지를 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봄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 능력의 프리미엄”을 도출하는 연구로 볼 수 있음
  -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영어 능력은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자의든 타의든 거의 모든 학생들과 적지 않은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상황
  - 최근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초중등 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교육투자에서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투자가 공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학원, 개인교습,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교육 투자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영어 능력이 필수 능력으로 간주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면에는 영어 능력에 따른 높은 수익이라는 경제적 유인도 작용하므로, 영어 능력에 대한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하자면 우선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영어 능력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
  - 영어 능력은 학력과 연령에 크게 의존하여 독해의 예를 들 경우 고졸 수준에서 교육수준이 1년 올라갈 때 독해 능력이 있다고 자평할 확률이 9%p 상승하며, 연령이 43세에서 1세 내려갈 때 영어 독해 능력이 있다고 자평할 확률은 3.3% 정도 감소
  - 수능 영어 성적은 여성이 더 높지만 전반적으로 남성의 영어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4세 당시 거주지 및 부모 학력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능력 외에도 환경 요인이 영어 능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 개선을 통해 영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줌
  -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때 영어 능력을 갖춘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가정 환경이 영어 실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대도시 거주 여부가 영어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어 읍 면지역의 영어 교육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첨부 표 참조)
  - 일반적으로 서울 등 특별/광역시 출신 사람들이 영어에 익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대도시인 대구와 대전이 제외된 경북, 충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반면 전주가 포함된 전북은 상대적으로 높음)

<표> 14세 거주 지역별 영어 능력 차이

	관측치수	회화	독해	작문	토익 여부
서울	1884	49.9%	54.6%	44.0%	7.4%
부산	813	39.4%	48.1%	37.5%	6.9%
대구	536	39.0%	50.4%	38.8%	6.9%
인천	237	46.4%	43.9%	35.9%	4.6%
광주	422	48.6%	51.4%	45.7%	3.6%
대전	303	40.6%	48.5%	40.3%	5.3%
울산	188	41.5%	54.3%	40.4%	7.4%
경기	1312	36.2%	40.1%	31.3%	2.7%
강원	477	26.6%	28.1%	22.4%	1.3%
충북	468	25.4%	32.3%	19.0%	2.6%
충남	821	15.0%	15.7%	11.7%	0.6%
전북	900	30.0%	32.1%	26.6%	2.2%
전남	986	20.5%	21.2%	14.0%	2.1%
경북	1183	19.8%	26.4%	19.1%	1.8%
경남	1125	26.3%	29.3%	24.3%	3.5%
제주	32	34.3%	34.4%	31.3%	0.0%

-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학력이나 연령을 통제하더라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의 경우 영어가 요구되는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관적 평가로 영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나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대략 30% 정도 높은 임금을 받음
  - 이런 영어 프리미엄은 2000년대 들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 그러나 관측치 수가 제한된 표본에서지만 영어 점수(TOEIC)가 높은 사람의 임금이 높은 현상은 관측되지 않으며, 수능백분위 점수를 통제한 경우에 영어 프리미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능점수가 낮고 영어 능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수능점수가 높고 영어 능력이 낮은 사람의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 영어 능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받는 높은 임금이 영어 능력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 또한 도구변수법(Instrument Variable)을 사용한 추정에서도 영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결과 역시 영어 능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받는 높은 임금이 영어 능력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 본고의 분석을 통해 영어에 대한 직무 상 수요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현장과 연계된 정규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됨
- 특히 정규교육에서 지역 간 영어 실력의 격차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가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영어 능력이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자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발견도 많은 함의를 갖고 있음
- 영어 능력 자체가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영어를 선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
  - 그러나 영어 능력이 선별도구로만 이용될 때 젊은이들의 인적자원 투자가 합리적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것임 → 영어 프리미엄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는 없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영어 교육 투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적자본이 특정부분에 과잉 투자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

## 사회보장제도 및 은퇴결정이 은퇴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담 당 자	전 승 훈
소 속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
전 화	02-788-4664
매 수	2 매

□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은퇴결정 및 은퇴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2007년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중고령자의 은퇴 후 노동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은 상당수의 노동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271명 중에서 57명(21%)가 은퇴 후에도 노동공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 후 노동공급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 은퇴 후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은퇴 후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국민연금제도 등의 효과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시사점을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기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애 조기노령연금 급여예상액이 많을수록 조기은퇴 확률이 높아짐
  - 생애 정규노령연금 급여예상액이 많을수록 조기은퇴 확률이 낮아짐
  - 전문가와 준전문가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기은퇴 확률이 낮음
  -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조기은퇴 확률이 낮아짐
- 은퇴 후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조기은퇴는 은퇴 후 노동공급을 유의하게 증가시킴
  - 조기은퇴자의 경우 재산소득이 많을수록 은퇴 후 노동공급이 감소함
  - 정규은퇴자의 생애연금급여는 은퇴 후 노동공급을 감소시킴



-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2007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이 조기 은퇴 확률 및 은퇴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생애 노령연금의 감소가 조기은퇴확률을 높이거나, 효과의 크기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은퇴 전 소득의 60% 수준이던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에 50%로 인하되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40% 가 됨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조기은퇴자의 노후대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다양한 공적 사적 차원에서 노후대비책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조기은퇴를 결정한 후에는 은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는 점과 은퇴 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됨
-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후에 대한 준비가 은퇴 전에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 후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 후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조기은퇴 결정이후 이루어지는 노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조기은퇴로 인한 노후 불안정성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 본 연구의 추정결과 전문가나 준전문가 집단의 경우 조기은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고령층의 고용 보호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기은퇴 확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고용이 안정적인 경우 조기은퇴 확률이 낮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는 대개의 경우 조기은퇴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함
- 중고령층의 취약한 고용안정성과 조기은퇴, 이에 따른 노후 준비 부족은 노인빈곤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음

##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담 당 자	우 해 봉
소 속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화	02-3218-8622
매 수	2 매

- 한국사회에서 인구변동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 현상인데, 최근까지 이루어진 인구학적 논의들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이 초혼 연령의 상승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구동태 통계 또한 1980년대 이후 혼인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초혼 연령과 혼인율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marriage forgone) 개인들이 증가하는지 혹은 결혼을 하되 단지 결혼의 시기가 연기되고(marriage delayed) 있는가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 연령의 상승에는 고등교육의 팽창이 그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단순히 결혼을 연기하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등교육의 획득이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을 증가시키는가를 분석함
-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초혼의 연령별 패턴과 관련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초혼 형성 패턴이 보다 압축적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결혼을 시작하지만 3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 전반적으로 19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그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에 비해 결혼을 연기할(marriage delayed) 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marriage forgone) 개연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는 교육과 초혼 사이의 관계가 연령과 출생 코호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줌
  -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전문대졸 및 대졸)은 비록 연령이 낮을 경우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혼을 함으로써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들(고졸 이하)을 사후적으로 따라잡기(catch-up)하는 현상이 관측됨으로써 대체로 교육의 효과는 결혼의 연기로 나타남
  - 반면 1970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교육의 효과는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1970년 이후 출생한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1970년 이전과 유사하게 비록 교육이 결혼을 연기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들을 사후적으로 따라잡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1970년 이후 출생한 여성들의 경우 남성과 달리 고등교육을 획득한 여성들은 고등교육을 획득하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결혼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의 출생 코호트들로 올수록 결혼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음
  - 남성들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저학력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1970년 이후에 출생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관측되는 이러한 교육의 차별적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분리 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일과 가족의 영역에서 동시에 요구되는 역할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